

문화광장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한국의 비엔날레 30년

한국에 비엔날레가 자리 잡은 지 30년을 맞이했다. 30년 전의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치하에서 벗어나 이른바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약합에 따른 결과물이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절차적 민주화를 이룬 것이었으므로 김영삼정부는 정치군인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등과 같은 개혁 조치를 거침없이 해나갔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중미술 15년전'과 같은 전시로도 나타났다.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와 인권, 평등, 반전, 평화 등을 앞세웠던 민중미술운동의 성취를 대규모 기획전으로 정리한 이 전시는 군부독재정부와 차별화한 문민정부의 면모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민주주의 성취를 앞세워 새 판을 짜고 있던 한국사회의 변화는 미술영역에서 국제미술행사의 새 출발로도 나타났다. 돌이켜 보면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전지구화의 거친 격랑을 앞둔 시기에 스스로 세계화를 내세우며 대책 없이 국제무대에 뛰어든다가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국제주의 열풍은 다소간 무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분야에서 나타난 국제화 또는 세계화 프로젝트들은 한국미술의 규모와 방법, 품격과 위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93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93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은 회화와 조각 등 전통적인 장르에 머물러있던 한국미술계에 영감과 설치 등의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다문화주의 의제를 펼쳐 한국미술계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흐름은 광주와 베니스에서 세계무대를 펼침으로써 더욱 가속화했다. 1995년에 창설한 광주비엔날레는 1980년 광주항쟁의 역사를 토대로 한국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광주시민의 항쟁 정신을 그 뿌리로 삼아 대동했다. 같은 해에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마지막 파블리온 국가관으로 한국관이 생겨 첫 전시를 열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사건 모두에 백남준이 중추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역사를 갈무리하는 전시가 베니스에서 열렸다. '광주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은 민주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백남준의 '고인들'을 비롯한 작품과 자료를 전시했으며, 특히 광주항쟁 당시 주먹밥 아줌마들이 사용했던 양푼을 출품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전: 모든 섬은 산이다'는 역대 한국관 출품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대규모 회고전이다. 한국말로 안내해 주는 이탈리아의 공방과 삼정 현지인들을 접하며 30년 전 국제무대의 첫 발을 내딛던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았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랑을 지나 세계무대에 자리 잡기 시작하던 30년 전의 대한민국의 선배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열린마당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현순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가는 물가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현실인 요즘, 우리 동네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착한가격업소는 청결한 위생상태와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 이·미용실,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물가안정업소를 뜻한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착한가격업

소 83개소가 지정되어 고물가 시대에 가격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을 유지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도 인센티브 지원으로 공공요금 사용료(연 최대 100만원), 상수도 사용료(매월 최대 55t 감면), 맞춤형 물품(최대 16만원 상당), 방역지원 및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홍보지원과 시 인센티브로 업소당 20만원 상당의 탐나는 상품권이 지원된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 행복 주는 내실있는 제주관광 모색”

내국인 관광수요 회복 논의

○...제주도가 22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도 관광진흥협의회 위촉식 및 회의를 열고 제주관광 활성화 전략을 집중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관광객 유입을 꾀하기 위한 내국인 관광객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기술 기반의 관광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해 제주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내실 있는 제주관광 실현을 함께 모색하자”고 언급. 백규탁기자

강 시장 “시민과 가까이 소통”

○...강병삼 제주시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들 고충과 정책을 제언받고 상담하는 현장민원실 ‘동병삼련’이 지금까지 총 14회 진행되는 동안 100건 이상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호응.

지난 2월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지난 20일을 기해 제주목 관아에서 다시 문을 연 현장민원실 동병삼련에서는 시민 5명이 현장을 찾아 아파트 소방시설 전용구역 부재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공간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이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강 시장은 “동병삼련을 통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작은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 이상민기자

사설

농업인구 지속 감소, 농촌 소멸 우려된다

제주지역 농촌이 소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날로 확대되며 농업소득이 쪼그라들면서 농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누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 농촌에 동지를 틀려고 하겠는가. 단적으로 농가인구만 봐도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농촌에 사는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다 농가 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주 농가는 3만 357가구, 농가인구는 7만 2985명, 농가는 95가구, 농가인구는 1480명이 감소했다. 2023년 12월 1일 현재 제주 농가의 1~2인 가구 비율이 67%(1인 4355가구, 2인 1만 6074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은 농가 고령화가 심각하다. 지

난해 12월 1일 도내 농가의 65세 이상이 2만 7545명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농민 10명 중 4명가량이 65세 이상이란 얘기다. 제주 농가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 농가가 젊어진 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도내 농가부채가 1억원에 육박한다. 통계청이 밝힌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도내 가구당 농가소득은 5824만원이다. 반면 농가부채는 9165만원으로 빚더미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시원치 않은데 인건비와 농자재값 등 영농비는 계속 오르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오죽하면 지난해부터 제주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서겠는가.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살길을 지원하는 희망적인 농정이 또 농가 고령화가 심각하다. 지

제주 관광 구조적 문제 개선 손놓아선 안돼

최근 제주관광 흐름이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인 차츰 늘어나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 19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로 내국인이 채웠다면 엔데믹 이후엔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 1337만 529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중 내국인이 1266만 1179명을 차지했다. 2022년보다 8.3% 줄어든 수치다. 해외여행길이 풀린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8만 5242명에서 지난해 70만 5044명으로 727.1% 급증했다. 그런데 이는 기저 효과로 인해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2019년(170만 3840명)과 비교하면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악의 흐

름을 벗어나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럴 때일수록 제주 관광의 불변요소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여행패턴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방문 관광객 1400만명+알파(α) 시대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내국인 관광객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외국인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목표치에 매몰돼서 기존 제주관광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외면해선 안된다.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는 물가가 비싼 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하다. 2022년 조사에선 내국인 절반(53.4%) 이상이 ‘물가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저가 관광도 여전하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감사의 말씀
고희식(前 삼도2동 동장·생안교회 원로장로·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4월 23일
배우자 조방자, 아들 고성철, 며느리 노경진, 오철, 조원정, 종철, 사위 김형진, 딸 고은영, 은경, 은지, 문정삼

모지매매
연동 2488-439
모지매매(문중토지)
618㎡ 조성완료
3.3㎡ 당 55만원
☎ 010-3699-0254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2696-987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중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모지관리·모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회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지족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등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 선홍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